

# 19세기 朝鮮人の 小說觀

—「夢遊野談」著者の 경우—

成 賢 慶\*

## I. 「夢遊野談」과 그 作者의 生涯

嶺南大學校 도서관에 〈夢遊者〉의 「夢遊野談」이란 책이 所藏돼 있는데, 〈小說〉章에 우리 小說 및 中國小說에 관한 견해가 밝혀져 있어 흥미롭다. 우리는 이 記錄을 통해서 朝鮮王朝時 한 儒者의 小說觀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책은 어떻게 構成돼 있는가?

그 목록을 보면 科學, 科臼文體, 書籍博覽, 剽造文字, 小說, 命數前定, 達理知命, 交道炎涼, 流俗痼弊, 老人反常, 滑稽奇談, 雜說, 睡說, 里諺, 酒辨, 古今詩話, 八域總論, 八道各說 순서로 列擧・記述되어 있고, 맨 끝에 〈叙傳〉이라 하여 作者의 略歷이 실려 있다.

그런 作者인 〈夢遊者〉에 대해서부터 우선 살펴 보기로 한다.

夢遊者는 全州 李氏로서 穰派(王族)에 속한다. 孝寧大君 子孫으로 그 집안은 일찌기 글과 학문을 숭상하고 曾祖는 文行이 卓絶한 藥坡先生이니, 증 조부의 이름은 希齡이다.

李希齡은 숙종 丁丑 5月 13日에 낳아서 丙申 2月 2日 세상을 마쳤으니 1697년(숙종 23)~1776년(영조 52)을 산 人物이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이름을 이루지 못하고 영세(零勢)해서 또한 떨치지 못했다.

夢遊者는 서울 瓦泉에서 태어났는데, 일·여덟 살에 집안이 풍지박산, 楊州의 先塋下에 가서 근근이 목숨만을 이어 갔다. 그러나 아버지의 가르침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14·5세 때에는 이미 「通鑑」이나 「史記」·「經書」 등을 능

\* 嶺南大 教授(國文學專攻)

히 알고, 글을 지을 줄 알게 되었다. 또한 타고난 성품이 迂濶해서 事務에 밝지 못하고 產業을 아지 못했으며, 집안 사람들이 모두 太古적의 天皇氏 같은 사람이라고 일컫는가 하면,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이라고 일컬었다. 그 아버지가 부지런히 글 읽음을 가삼히 여겨, 하여금 門戶의 맑음을 위해 科擧에 종사케 하여, 무릇 지은 글이 詩·表·論·策·賦 등 1만 여 首에 이르렀다. 서울서 노닐면서 科場에 出入하기를 거의 수십 년, 그러나 門衰祚薄하여 40여 세에 이르러 비로소 庠에 오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 때는 이미 아버지가 늙어서 마침내 돌아가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이 이상 더 나아갈 뜻이 없어 마침내 科業을 폐하였다. 그 志氣가 자못 호탕해서 조그마한 일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얽매이지 않았다. 그래 어린 나이에 금강산에 노닐었고 늦나이에는 또한 中國 가는 使臣을 수행하였다.

비록 解飲치는 못했으나 嬉遊自放했으며, 비록 詩를 제대로 工夫치는 아니했으나 詩가 목구멍에서 절로 우러나왔다. 성품이 또한 남다르고 晝학을 좋아하며 능히 때와 더불어 俯仰치를 못했다. 비록 여러 해를 사권, 科擧 공부를 같이 하던 자라도 만일 官路에 나아갈 것 같으면 마침내 교제를 끊고 記游하고 다시 서로 문안하지 않았다. 이렇게 과연 남과 다름이 있다.

이 모양 그대로 늙어서 가난한 집에 칩거, 마른 소나무에 표주박을 얹어 매고 마침내 남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허물하지 않고 한가로이 지냈는데, 잠이 없어 마침내 이 「夢遊野談」이란 책을 엮어 스스로 消遣하였다.

그렇다면 夢遊者의 姓名·年齡·身分·生存年代 등은 어떠한가?

「臚派續譜」卷 10<sup>1)</sup>에 의하면 李希齡의 曾孫으로 有龍·遇駿·遇麟·遇鴻 넷이 있는 바, 이 중 遇駿과 遇鴻만이 각각 生員과 進士가 되었다.

그런데 遇駿은 1801년(純祖 1년)에 출생 1867년(高宗 4년)에 사망했고, 遇鴻은 1805년(純祖 5년)에 낳아서 1869년(高宗 6년)에 생을 마쳤다.

한편 이들의 父親인 漢宗은 1765년(英祖 41년)에 出生, 1843년(憲宗 9년)에 卒한 것으로 「臚源錄」에 나타나 있다.

이 사실을 “正晩老成 四十餘 方始登上庠 先人時已篤老 以是千秋見背”란

1) 서울大 奎章閣圖書

문맥과 결부해 볼 제, 夢遊者는 遇駿인 것으로 보인다. 庠에 올랐다는 기록을 生員보다는 進士쪽으로 받아들임이 나올 듯하나, 그럴 경우 나이가 맞지 않을 것이다. 生員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큰 무리 없는 일이고 보면 遇駿으로 고정함이 좋을 듯하다. 이렇게 볼 제, 「夢遊野談」의 저자는 곧 19세기의 李 遇駿으로 드러난다.

## Ⅱ. 夢遊者의 小說觀

夢遊者의 小說記를 통해서 우리는 한 朝鮮 儒者의 小說에 관한 매우 肯定的이고 進歩的인 見解를 읽을 수 있다. 그의 견해를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經史를 즐기고 科業만을 닦는 자는 小說을, 터무니없는 거짓말이고 종잡을 수 없는 글이라고 배척, 평생 눈 한번 안 돌리는 자가 많다. 이렇게 소설책을 雜書라고 생각해서 이를 비방하는 자 있으나, 이들은 冬烘先生流에 지나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면 小說이란 무엇인가?

作者가 빈 데다 시름을 얻어 매고 허공을 꿰뚫어 생각을 쌓고 뜻을 포개어 奇語를 짓는 것이다. 그래 황당무계한 이야기일지라도 그 뜻이 깊고 또한 멀어서 한가한 문자와 같지를 않다. 비록 寓言托辭일지라도 그 본뜻을 窮究한즉 깊고도 또한 이치에 합당한 것이다. 그래 人心과 風俗을 感化·教化해 주며, 기쁨을 준다.

이런 면에서 이 夢遊者는 小說文學의 “흥미”와 “교훈성” 양쪽을 다 認定한 셈이다. 夢遊者는 또 이렇게 계속하고 있다.

「南征記」를 보자. 그 내용이 激切하고 처참 측은하여 족히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열은 풍속을 경계하고 바로잡게 할 만하다. 마침 임금님마저 감격케 하고, 그 뜻을 돌리게 하지 않았던가.

「九雲夢」은 釋迦의 寓言으로써 富貴功名을 한바탕 꿈의 경지에 돌리는 것으로 중국 문사들이 지적했듯이 글의 체재나 사상은 심히 좋으나 그 규모가 적고 소략함이 애석하다.

「彰善感義錄」·「南征記」는 모두가 閨範內行을 이야기한 것으로 節節이 奇聞異說이 있어 족히 婦女子의 귀감과 경계거리가 되고 권징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들이 비록 여염의 稗說일지언정 風俗敎化에 보탬이 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 古小說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의 小說觀을 피력하고 있다. 그런데 注目을 끄는 것은 우리 小說뿐 아니라 中國小說에 관해서도 그의 意見을 開陳하고 있는 점이다.

한 집안의 일을 들어서 엮은 것이 「金屏梅」요, 한 나라를 들어서 엮은 것이 「水滸傳」, 한 天下를 들어서 말한 것이 「三國志」다. 무릇 집, 나라, 천하에 다시 더 보탬 게 무엇인가. 이 이상 더 존재할 것이 없으나, 순전히 허구의 세계를 끌어들여 황당한 奇語로 엮은 게 있으니 이것이 「西遊記」다. 이조차 깊은 뜻과 합당한 이치를 바탕으로 꾸며져 있는 것이다.

이 이외에 또 張君瑞와 崔鶯의 일을 다룬 情景를 묘사한 곳이 꼭진하고 靚絶하여 다시 가히 전줄 게 없다.

近古에 文章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친 자 또한 많은데, 이들은 이러한 小說들에서 힘을 얻은 것이다. 어찌 雜書라 해서 貶視할 것인가.

또한 이 夢遊者의 小說記는 중국에 그 많이 존재하는 소설들의 創作過程 流布 過程을 보여 주고 있어 재미있다.

江南 西蜀의 과거꾼들이 應科次 上京, 낙방을 당하게 되면, 이들이 길은 멀고, 따라서 능히 되돌아갈 수 없게 되매 그대로 머물러 다음 과거를 기다리는 동안 小說을 지어 出刊, 이것을 판 돈으로 生計 밑천으로 삼은 까닭에 小說冊 수요가 그같이 많다 하였다.

이를 우리의 小說創作過程과 결부시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 中國의 大陸과 같은 넓은 영토를 背景으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路資가 떨어져 집에 못 돌아가는 경우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할지라도 아뿔든 科擧에의 낙방객들이 小說創作에 참여했을 가능성·개연성은 짙다.

우리 古小說에 “尖勢兩班의 權力回復意識”<sup>2)</sup>, “落班이나 中人의 對現實

2) 徐大錫 “軍談小說의 出現動因 反省” p. 35, 古典文學研究 第1輯 1971. 韓國古典文學研究會

眼<sup>3)</sup> 등이 나타나 있음은 이미指摘되었다. 그리고 「玉樓夢」 같은 작품의 作家는 科擧에 落榜, 그 꿈을 小說로 形象化해 놓았음도 이미指摘<sup>4)</sup>되었다.

이렇게 볼 때 夢遊者 李遇駿의 「夢遊野談」 가운데 나오는 〈小說〉記는 꽤 흥미있는 資料들을 많이 제공해 주고 있는 셈이다.

19세기 초·중엽을 산 儒者가 이렇게 進步的인 小說觀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그가 凡人과 다른 성품을 지니고 있고,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었던 데다가, 일찌기 中國에의 外遊를 통해 그의 眼目을 넓힐 수 있는 契機가 주어졌었던 데 基因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그는 日常性을 벗어나 고정적인 對現實眼·世界觀으로부터 脫皮, 안목을 深化·擴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면에서는 그는 朝鮮의 한 方外人이었다 할 수 있겠다.

### Ⅲ. 맺는 말

이렇게 우리는 「夢遊野談」의 〈小說〉記를 통해서 時代와 人物이 확실한 朝鮮王朝時 한 儒者의 進步的인 小說觀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 이는 우리 小說史 記述에 있어서 꽤 重要的 資料가 되리라 본다.

한편, 「夢遊野談」의 作者를 밝힐 수 있었던 것도 커다란 收穫이라 보아진다.

다음에 參考에 資하고자 「夢遊野談」의 〈小說〉記와 그 冊末尾의 〈叙傳〉을 옮겨 둔다.

#### ◎ 小 說

金西浦萬重多以俗諺作小說有曰南征記即謝女貞玉有賢德淑行而爲嫡妾所妬被驅見送遭罹厄窮之事也其辭激切慘惻足以感動人心警勸薄俗其從孫北軒春澤以諺書醜膽行于世肅廟時流入宮中感回天意與司馬長卿長門賦一般又所謂九雲夢公在謫時所作六觀大師徒弟性眞與南岳八仙女相戲得罪謫下人間幻生於楊家之事也楊小遊文章勲業冠于一世出將入相身極富貴因以八仙女相會做緣一生權治終而限滿還歸空門其意蓋以功名富貴歸之一場夢境以釋迎寓言帶得楚騷遺意爲上下二卷中原文士見之以爲機軸甚好而恨不能鋪張其

3) 成賢慶 「「劉忠烈傳」檢討」 pp. 60~63, 古典文學研究 第2輯 1974. 韓國古典文學研究會

4) 成賢慶 「玉蓮夢研究」, 國文學研究 第9輯 1968. 서울대

事以成大篇帙云又有曰彰善感義錄叙花相國珍及尹尚書汝玉之事玉麟夢叙范樞密景文柳參政原之事此未知作者之誰而大意與南征記相彷彿皆所以叙閭閻內行而節節有奇聞異說足令人家為婦女者鑑戒而勸懲焉此雖閭巷稗說所以補風化者不可謂小矣中國人多為小說余見正陽門外冊肆堆積滿架而大半是稗官雜說蓋江南西蜀舉子應舉上京見落者路遠不得還留待後科作小說印刊賣以資生故其多如是其中有稱四大奇書即東都施耐庵所著而金聖歎為評以為天下之書無加於此蓋耽嗜經史專治科業者斥之為誕妄不經之文平生未嘗一寓目者亦多矣然而余觀作者之意至深且遠非等閑文字也一日金屏梅是說富人西門慶蓄妾於一室中恣行權譎日金日屏日梅諸女妬寵猜美各以十三省方言自相戲慢是舉其一家而言也二曰水滸傳乃說宋江等一百八人叛據梁山泊上應天罡地煞之數奪掠貪官不義之財掠亂山東橫行天下朝廷不得禁官軍不敢近苑子城蓼兒佳便作一敵國是舉其一國而言也三曰三國志天下之亂未有如三國之時也吳魏蜀鼎峙局爭謀臣猛將如雲如雨諸葛亮一箸三分神機妙等其說甚多是舉一天下而言也凡家而國而天下則更無可益而作者乃架虛鑿空層思疊意又作一奇語曰西遊記蓋以荒唐之說叙唐太宗為魏徵追薦做道場當時法師三藏率徒弟孫悟空沙乘豬八戒等往西域天竺國持佛經以來而所道歷八十一難之事也所謂三藏以人軀殼而言之人雖有一個般若非心為之用則無知覺運動故以悟空引喻於心即猿也悟空以猿化身生於靈臺方寸山斜月三星洞始號齊天大聖一斛斗行一萬八千里用金箍棒攪擾玉京打碎香案真所謂於雖不拘出入無時者也玉皇以天道設教着之以緊箍兒拘囚於五行山石穴中五行即仁義禮智信以為制心者莫如此也所謂沙乘以意馬為喻豬八戒比之於慾是蓋就人一心上言也雖是寓言托辭而究其本意則深為有理合而稱四大奇書又著西箱記一部即張君瑞鶯鶯之事而寫情景處曲盡週切更無可比有題曰普天下萬萬世錦繡才子醉心記近古以文章名世者亦多得力於此以為雜書而詆之者不過為冬烘先生之流歟。

### ◎ 叙 傳

夢遊子系出躡派鼻祖曰孝寧大君讓德輅晦托跡禪佛月中清癡中中權與周之虞仲比焉歷三世曰明原君為中明朝名宗每賜對講論詩書立朝四十年以正真有名其子參議諱某當壬辰倭亂奉命招募至金城遇賊被害伊後傳曰世世承蔭仕家尚文學曾祖諱某號棄坡文行卓絕凡捷十二鮮而竟不成名因以零勢不振夢遊子生於漢城之瓦泉纔險雪齡風家私寓於楊州之秋下日盧荒頓山厨屢空然而先人教誨不倦十四五畢讀通史經傳能知屬文但賦性透瀾於事務不識產業家人稱以天鄉鄉隣謂之佛氏告人獨嘉其勤儉俚以門戶之清從事科白凡所做得詩千表千論百策百賦五千義三千萬餘首游藝京師出入場屋殆數十年門衰祚薄正晚老成四十餘方始登上岸先人時已篤老以是千秋見背因无意進取遂廢舉業其志氣頗陳宥不羈早歲遊蓬萊晚年又隨北使雖未鮮飲而嬉遊自遊雖不工詩而吟喉自暢性又曠是不能與時俯仰雖積年親知鉛槧者若出於官路則遂息交記游不復相問以是果有於人居然老白貽蟄霧盧不免為枯松繫匏而終不怨尤閑居无眠綸緝此說以為自遺云。